

10/4/15

설교 제목: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1:1-4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절관주** 눅 24:39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감독을 맡고 있던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요한일서 첫 부분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여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다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악한 육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환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환영설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인들이 미혹을 받는 것은 한치도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땅에 실제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단지 환영으로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 구원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구원관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이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오셨다. 바로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목격자!

TV 드라마 있었죠.

당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고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일어난 살인 사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목격자가 왜 중요합니까?

사건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열 한 사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는 열두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이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했으며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가롯 유다 대신 열두번 째 사도의 자리를 채울 한 사도를 뽑을 때 내세운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 1: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행 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 27 권 중 13 권,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14 권을 쓴 위대한 바울도 사도이나 아니냐로 논란이 많았고 자신도 이 문제로 다른 열두 사도와 비교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신사도 운동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해도 결코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한 증언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신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언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두 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증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증언에 다른 사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 즉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이 되어 이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침투해 교인들을 미혹하는 현실이 안타까와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지금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 증언으로써 효력이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AD 80-95 년 사이에 씌여졌으므로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 장 첫부분과 대동소이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먼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가지 다른 태초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간을 초월한 태초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1 에 나오는 태초는 물질 세계의 시간을 시작하는 태초를 말하고 있고 요한 복음과 요한 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 복음이나 요한 일서에 나오는 태초를 비교하면 요한 복음이나 요한 일서에 나오는 태초가 훨씬 더 오래 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셨을때 비로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상황을 묘사한 창세기 1 장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창 1: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³⁾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 **이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왜 이 사실을 증거하려 하는가? 증거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하려는 목적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귀어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귀어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셔서 서로 참여하고 나누어 가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귀어란 단순히 인간들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분순종의 죄를 지은 이래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 **사도 요한은 또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피차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요일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번역 된 본문은 원본에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 받은 것과 그로 인해 의롭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 백성된 것 즉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란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훌륭한 인간 예수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본 증인들의 확실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눈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손으로 만져본 자들의 진실하고 확실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고 증인들이 증언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성도의 교제는 믿는 성도들끼리만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물질적인 교제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의 권면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때 우리는 이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제를 나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